

# 10

## 또 다른 세상



◆ 글의 내용을 간추려 봅시다.



별을 선으로 연결해 나만의 별자리를 만들어 봅시다.





## 별자리 이야기

약 5천 년 전, 바빌로니아<sup>●</sup> 지역에 살던 유목민들은 양을 키우며 살았다. 밤이면 양 떼를 모아 놓고 지키면서 밤하늘의 별들의 모양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다. 그리하여 태양과 행성이 지나는 길에 따라 배치된 별자리에 양, 황소, 쌍둥이, 게, 사자 등의 이름을 붙여 주었다. 같은 시기에 고대 이집트에서도 이미 43개의 별자리가 있었다고 한다.

그 후 바빌로니아와 이집트의 천문학이 그리스로 전해지면서 별자리 이름에 그리스 신화 속의 신과 영웅, 동물의 이름이 더해졌다.

15세기 이후 유럽 사람들은 새로운 땅을 찾아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드넓은 바다를 향해하며 지구 남쪽 하늘의 새로운 별들을 관찰하면서 공작새, 날치자리 등 새로운 이름을 붙여 주었다.

한편, 중국과 인도 등 동양에서도 서양의 것과 다른 형태로 별을 관찰하고 별자리에 이름을 붙여 주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고유의 별자리를 갖고 있었다.

이처럼 여러 별자리가 곳에 따라 조금씩 달랐고 이름도 달라서, 자주 혼동이 생기고 불편한 일이 많았다. 그리하여 1930년 여러 나라의 천문학자들이 모여 밤하늘을 88개의 별자리로 나누기로 결정하고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다.

별자리를 이루는 별들은 저마다 밝기가 다르다. 그중에서 눈에 잘 띄는 밝은 별은 자기만의 이름을 갖고 있다. 거문고자리의 가장 밝은 별은 직녀성이고, 큰개자리의 가장 밝은 별은 시리우스라고 부른다.

17세기에 요한 바이어란 사람은 좀 더 어두운 별까지 이름을 붙이는 방법을 찾아냈다. 별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을 알파<sup>●</sup> 별, 그다음을 베타<sup>●</sup> 별, 감마<sup>●</sup> 별 순으로 붙이는 방법을 생각해 낸 것이다. 또 영국의 플램스티드는 별자리 내



백조자리



페가수스자리

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별을 1번으로 정하고 동쪽으로 가면서 번호를 늘려가는 방법을 정하였다.

우리는 밤이 되면 태양 반대편에서 비추는 별빛을 보게 된다. 그러나 지구에서 보았을 때 태양 쪽에도 별자리가 있다. 태양 쪽의 별빛은 태양 빛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지구는 태양 주변을 1년에 한 번씩 공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자리도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계절에 따라 관찰할 수 있는 별자리가 각각 다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봄에 관찰할 수 있는 별자리는 사자자리, 킥자리, 까마귀자리, 사냥개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등이 있다. 여름에는 거문고자리, 뱀자리, 전갈자리, 백조자리, 화살자리, 방패자리 등의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다. 가을의 별자리는 염소자리, 페가수스자리, 물병자리, 남쪽물고기자리, 양자리, 삼각형자리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겨울의 별자리에는 황소자리, 오리온자리, 쌍둥이자리, 토끼자리, 큰개자리, 게자리 등을 관찰할 수 있다.

- 바빌로니아: 메소포타미아의 동남부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의 하류 지방.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이다.
- 알파(α), 베타(β), 감마(γ): 그리스 문자의 첫째, 둘째, 셋째 자모

## 1 「별자리 이야기」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 1 여러 천문학자가 밤하늘의 별들을 88개의 별자리로 나눈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요한 바이어가 별의 밝기를 구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 3 계절에 따라 관찰할 수 있는 별자리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별자리 이야기」의 중심 내용을 써 봅시다.




## 3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윗글에서 찾아 써 봅시다.

- : 배를 타고 바다 위를 다님.
- : 사람이나 물건을 적당한 자리나 위치에 나누어 둠.
- :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말함.

## 4 「별자리 이야기」의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의 내용을 간추려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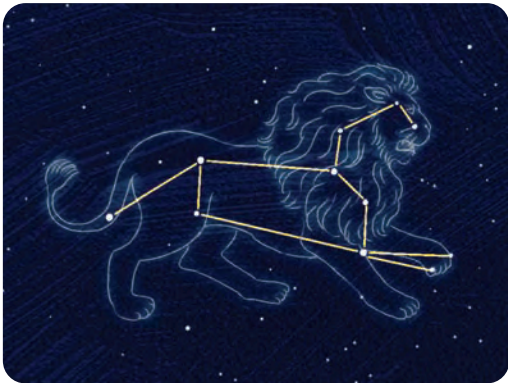
5 봄철의 별자리 중 하나인 「사자자리」 이야기입니다. 내가 더 알아보고 싶은 별자리 이야기를 찾아 읽어 봅시다.

## 사자자리

옛날 하늘에서 불타는 유성이 나타나 제우스 신전 근처 네메아 골짜기에 떨어졌다. 그리고 사자로 변신하였다. 그 사자는 몸집이 크고 포악해서 온 나라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 왕은 궁리 끝에 신들의 왕 제우스의 아들이자 당대의 영웅인 헤라클레스에게 사자를 물리쳐 달라고 부탁했다.

헤라클레스는 네메아 골짜기로 달려가 사자와 한바탕 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헤라클레스의 활과 화살, 창, 칼 등 어떤 무기로도 사자를 무찌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헤라클레스는 맨손으로 사자의 등에 올라타 결국 사자의 목을 졸라 죽이고 말았다.

온 나라 사람들은 헤라클레스에게 감사했고, 헤라클레스는 왕에게 큰 상을 받았다. 그것은 바로 어떤 무기도 뚫을 수 없는 사자 가죽이었다. 또한 제우스는



영웅 헤라클레스의 승리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사자를 하늘의 별자리로 올려놓았다.

따뜻한 봄이 오면 겨울 별자리들이 서쪽으로 물러가면서 내어준 하늘에서 사자 자리를 찾을 수 있다.



배움 다지기

●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요약했나요?

